

자연마을 이름 향촌(행촌) 유래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과산-9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과산

수령 890년

수고 15m

흉고둘레 8,5m



충북 과산군 불정면

신흥리 206(847)

36° 52' 21.72" N

127° 47' 54.41" E

정자목보다 신목의 성격이 강한 보호수(과산-91) 은행나무는 시골의 마을 길과 밭 사이에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89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마을 사람들은 1,000년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850cm 가량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4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졌으며, 줄기마다 위쪽 가지는 잘린 상태에서 새로운 가지를 내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줄기 밑동은 충전재 처리로 외과수술 흔적이 있고, 한쪽은 높이 3.5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로 썩음을 방지하고 있다. 생육은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 이름과 관련이 있다. 불정면 신흥리^{新興里}는 과산군 불정면에 속한 법정명이다. 고개 밑에 있는 농촌 마을이다. 신흥은 새로 일어나라는 뜻이다. 신흥리는 1964년 행정구역 세분화에 따라

향촌과 두촌으로 나누어졌다. 향촌은 예전에 개오개(고개 밑)라 불렀던 자연마을인데, 마을 입구에 커다랗게 자란 은행나무가 있어 붙여졌다. 은행나무에서 유래한 동명^{洞名}이다. 향촌 이름은 은행나무와 쉽게 연결할 수 없는 듯하지만 은행나무마을의 뜻인 향촌^{杏村}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 두촌은 건개울(개울에 물이 항상 말라 있음), 두무절(두무사 절이 있었음), 모내일(연중 모내기를 함) 등을 합친 자연마을이다. 은행나무는 지금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수살막이(시골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돌이나 나무) 개념으로 주민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주민들이 동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신흥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개오개리, 모내일리와 충주군 불정면의 외석정리와 두촌리 각 일부를 병합한 법정명이다.

